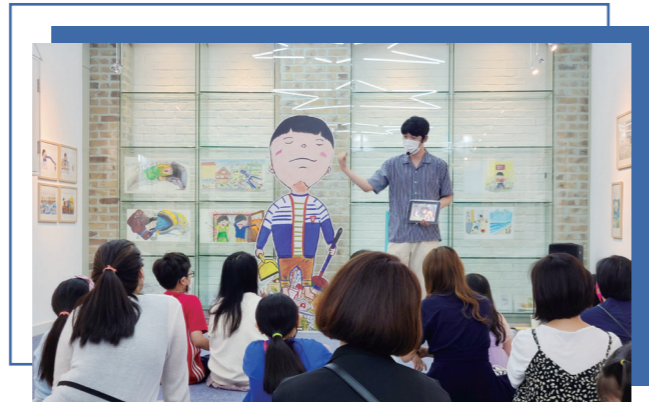


도서관으로 떠나는 여름 북캉스

여름이 좋은 이유, 방학과 휴가가 있어서 아닐까. 황금 같은 휴식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고양특례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보자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 누구나도 책을 읽으며, 동시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.

자료. 고양특례시 도서관센터



2021 박규빈 작가의 방(작가 도슨트)

책을 통해 읽고, 생각하고, 나누다

삼송도서관에서는 2022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인 '나를 위한 글쓰기 2'가 펼쳐진다. 이문재 시인과 박현희 강사의 진행으로, 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. 2022 도서관 지혜 학교 '신화 속 삶의 지혜'도 열린다. 이 프로그램은 민승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함께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하는 시간이다.

백석도서관의 '그림 인문 산책 시즌2 : 그림책의 숲'은 시즌1의 서양미술사에 이어, 강무홍 아동문학작가가 흥미로운 그림책의 세계로 인도한다. 온라인(ZOOM)으로 진행되어 휴가지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좋은 책을 읽고 난 뒤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. 대화도서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. 8월의 책은 『충실한 마음』(델핀 드 비강 지음, 레모)이며,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.

일산도서관 역시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 수어를 통한 '손으로 만나는 그림책', 도서관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상상해보는 '앉아서', 책을 매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떠오르는 심상을 글로 쓰는 인문학 프로그램 '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법'이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.

책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여름방학

아이들에게 책과 친구가 된다면, 방학은 한 뼘 더 자라는 성장의 시간이 된다. **주엽어린이도서관**에서는 8월 27일과 9월 14일 2회에 걸쳐 『바삭바삭 갈매기』 전민걸 작가의 그림책 전시회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열린다. **행신어린이도서관**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영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 6~7세와 초등 1~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'잉글리쉬 잼잼'과 '영어동화친구들' 프로그램이 그 무대다.

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알차다. **가좌도서관**에서는 '도레미 팡팡! 신나는 그림책 놀이터'로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.

이처럼 도서관에서 즐기는 '북캉스'는 시원한 공간에서 마음의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고양특례시 지역 도서관의 다채로운 여름 프로그램은 울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.



2022 이소영 작가의 방(작가 도슨트)



세상을 배우는 수어



길위의 인문학 - 퇴근 후 기차길 옆 인문학



'고양시 도서관센터' 홈페이지 바로 가기

덕양구도서관과
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(화정동)
☎ 031-8075-9215

일산동구도서관과
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(마두동)
☎ 031-8075-9038

일산서구도서관과
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(대화동)
☎ 031-8075-9130